

해외시장을 간다



① 중국 萊州

“석재의 고향”

풍부한 광산·인력자원으로
투자 가치 높아



(사)한국석재협회 회장
명치국

◆ 현황
래주는 산둥 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한 연해시이며 면적은 1878km²이고 인구는 88만. 중국의 연해 대외 개방 도시중의 하나이다.

래주는 108km의 해안선과 중국에서 제일 큰 가리비 양식지이며, 쌀, 새우, 조개, 해조류등 해산물의 최대 산지이다. 경제 이미 개발된 30여종의 광산이 있다. 황금, 화강석, 대리석, 활석, 형석, 능석, 마그네사이트, 간수, 흑연, 철, 은, 동등의 자원이 있으며 그중 황금의 저장량은 전국의 6분의 1에 달한다. 간수의 저장량은 3.3억여이다.

대리석, 화강석의 25억평정도 산동에 있다. 중국 북방(래주)석재연구기지로 중국정부에서 인정하였다.

래주는 중국 곡물 생산의 기지이며, 농업특산물 총량은 중국의 5위이며, 황금, 전자, 식품, 경방, 기기, 전자, 자동차부품 등 28개 분류 200여개 업종이 기반을 이미 형성하였고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장점
1) 자원 - 래주는 화강석, 대리석 같은 광산자원이 풍부하며, 이미 20여 종이 개발되었다. 그 중 주요제품으로

는 은화용, 정백용, 내주용, 흑화화, 중국백마, 래주용, 금수석, 실화백 등 그 매장량이 25억평에 달한다. 래주는 중국의 '석재의 고향'으로 불릴 정도다.

현재 광산이 이미 개발되었고 관제가 공, 공예조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미 석재생산 기업이 2천2백개 업체에 달한다. 매년 60만평의 원석을 채석하고 있으며 2,500평을 가공해서 관재로 만들고 있다. 석재조각과 공예품은 20여만 건에 달하고 아주 큰 산업기지로 형성되어 있다.

래주시 주변에는 분홍화, 진주화, 문동백, 산동홍, 노희 등의 비교적 좋은 석재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래주는 2만평의 참고를 건설중에 있으며 국제 각종 석재제품이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

이 두 공장에서 비행기로 50분정도면 한국에 도착한다.

래주항은 중국정부에서 인정한 자유 무역항이며 이미 건설한 1만 평급, 5천 평급, 3천평급, 의 정박함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3백5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2003년까지 5백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두를 건설중이다.

4) 환경 - 래주는 중국의 유명한 여행 도시이며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치안 상태도 양호하다. 주변에 외국인 학교가 있어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있다. 래주시에서는 석재단지 내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동시에 호텔을 지어 외국인이 방문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한다.

다섯째, 금융정책으로는 외자기업은 중국 국경 내에 유효한 자원을 담보로 중국내의 신용기업을 담보가능하게 하여 국내은행에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다. 일반 대출은 최고 한도가 지방 집안 자산의 70%를 넘지 못한다.

6) 관세우대 - 래주는 개방이래 시장 일관 한국과 좋은 경제협착과 문화교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래주는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주요 지역중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1999년 래주와 한국 북제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지금 현재 래주에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60여 업체가 넘으며, 석재가공 중합합자, 한국투자기업은 10여개 업체가 있어 화봉우업, 금한수산, 삼보석재, 신원자산업은 모두 좋은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7) 가격 - 경제 발전의 영향으로 한국 석재기업이 한국에서와 래주에 공장을 투자 건설하는 단가나 경영 단가가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1평의 절골조 표준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래주에 건설하는 단가를 계산했을 경우 RMB 300~500원이 소요되고, 인건비는 한국의 10/1정도이다. 동일기준으로 관제를 만든다고 할 때 중국제조단가는 한국의 2/1정도이다.

이를 종합하면 래주의 투자환경은 아주 좋은 편이며 특히 한국 기업이 투자하기에 유리하다. 건설업은 중국정부가 발전시키는 업종이며 다른 업종에 비해 빠른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유치하고 도시건설과 올림픽운동장의 건설을 준비하고 있어 석재업체로서는 얻기 힘든 좋은 기회이며 이런 기회를 잡아 충분히 래주의 광산자원, 인력자원을 이용한다면 한국석재업체들의 투자에 따른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렴한 노동력, 유리한 관세조건 중국정부, 전략적 사업으로 육성

공장도 다른 시내로 갈 필요가 없다. 세계 각종 석재 반제품과 관제품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한 석제품을 경험할 수 있다.

2) 인력 - 래주의 석재개발 가공은 이미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석재 가공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5만여 명에 달한다. 대부분 가공설비와 숙련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한 인력자원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조건과 남자기술사 임금은 RMB 8백원, 여자기술사 임금은 RMB 5백원 정도이다.

3) 교통 및 물류 - 래주는 위치적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청도, 연대 두 개의 큰 국제공항과 근접되어 있으며 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정도 거리에 있다.

5) 정책 - 국제 법률을 준수하며, 다 음의 특별정책이 있다.

첫째, 토지정책은 토지사용권을 RMB 2~5만원으로 하며, 국유토지 사용권을 만들어, 사용기한을 50년으로 하고, 임대료 납부방식을 매년 토지임대료 RMB1천원을 납부하여, 투자수익이 비교적 큰 항목으로 설정하여 일사 일의의 원칙으로 채택한다.

둘째, 납세정책은 소득세 국가정책 규정에 수출상품기업, 선진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전력정책은 전기료 RMB 0.63/원으로 한다.

넷째, 광산정책은 국가정책상 충분히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기업도 광산을 개발 채석장을 경영할 수 있다.

국내석재와 중국산 석재 무엇이 다른가

물성적 특성 등 국내석 뛰어남

국내산 화강석에 대한 신지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북 익산의 황동석 및 함열석은 회백색, 중립질로 일본에서도 지명도가 높으며, 모비석, 건축재, 조각용으로 쓰인다. 충북음성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은 청색립질로서 고급모비석 및 조각용으로 사용된다. 경기 포천에 포천석과 신북석은 백색조립질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재로 이용되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은 회색세립질로 고급모비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본으로 고가로 수출되고 있다. 영주 지방에서도 고

급모비석(백색세립질)이 생산되고 있다.

중국은 복건성, 산둥성, 광둥성, 흑룡강성, 산서성 등지에서 화강석이 생산되는데 용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모비석, 건축재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복건성에서 생산되는 석재는 중국의 대표적 석재로서 그 특징은 백색중립질, 옅은 핑크색 중립질, 회색, 청색세립질 등으로 주로 모비석에 사용되며, 일부는 건축재로도 쓰인다.

산둥성 화강석은 적색, 자색, 핑크색 등으로 생산되어 건축재로 사용된다. 광둥성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은 백색조립질, 흑룡강성 회색 중립질, 산서성 흑색 등이다.

물리역학적 특성비교

	중국석	포천석	비율(%)
중국석	2.59	0.383	0.991
포천석	2.58	0.367	0.947
비율(%)	-0.39	-4.17	-4.44

최고급 석재와 정교한 기술로 창조한 조상들의 안식처

가족묘·중중묘·야외납골당

안녕하십니까?

우리 나라의 오랜 전통 장묘관습인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화장을 기피하고 매장을 선호함으로써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국토를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묘지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1년간 일본 전문고급묘석 수출로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삼미석재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고유의 우리 가족묘(가족, 중중, 문중 납골묘)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장묘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삼미석재에서는 다양한 모델, 튼튼한 설계, 완벽한 시공,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사각묘 1호(백가족묘)



팔각묘 1호(최고급형)



불교용 영탑



기독교형 납골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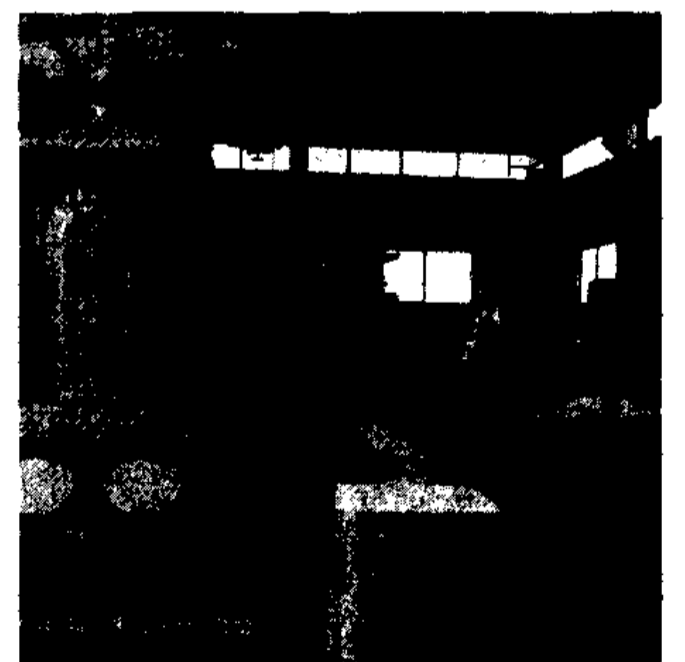
三美가 자랑하는 세가지의 美

- 石美(최고급 원석) 충남 보령의 최고급 원석으로 제작
- 加工美(세련된 석가공기술과 창조적 디자인) 선진 납골문화국인 일본수출로 입증된 최고 기술과 부설연구소를 통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
- 心美(조상을 섬기는 효심) 내 조상을 모신다는 효심으로 설계·시공·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

(株)三美石林産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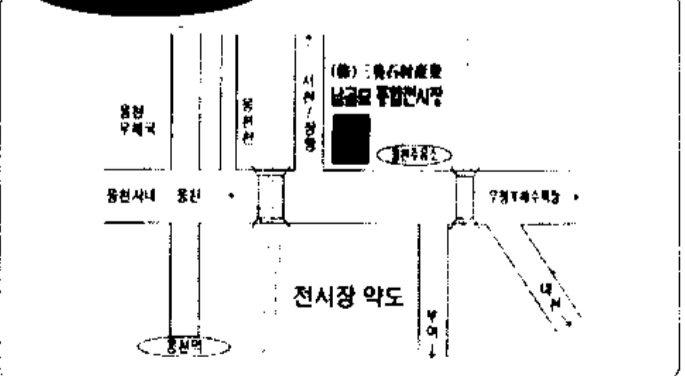
서울사무소 / 서울강남구 수서동 725 01시2000 오피스텔 708호
☎ (02)401-7132 FAX (02)400-2613
부산 및 전시장 / 충남 보령시 동천읍 대천리 36-2
☎ (041)933-2139 FAX (041)933-2597

www.napgolnara.co.kr www.s3mstone.co.kr



최고의 제품으로 꾸며진 (주)삼미석재산업 전시장

찾으시는 곳



“중국어 카탈로그·중국내 연락처 지정필수”

중국 국제전시회 참여 노하우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외국자본을 활발히 유치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특이사항은 외국제품에 대한 전시회를 활발히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시회 제목에는 보통 국제(國際)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명칭이 없는 전시회에도 국제적인 상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6년여 동안 한국제품, 특히 전자제품을 가진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얻은 몇 가지 경험이 있다. 여기서는 상하이 지역을 위주로 경험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국제전시회’와 ‘일반전시회’ 소비자 반응 큰 차이 없어

일반적으로 전시회는 방금 전에 말한 ‘국제전시회’가 있고, 여타 일반 전시회’가 있다. 이전에 ‘국제’라는 이름이 붙은 전시회에서는 외국인에게 전시회 부스가격을 높게는 7~8배까지 부과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높은 가격은 사라져가고 있다.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전시회 담당자들은 “외국인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전시회는 흔히 각 도시의 대외 경제무역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수년 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광고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갈수록 전시회를 주관하는 필자가 간단해지고 ‘국제’라는 이름이 붙은 전시회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에게서 얻는 반응도 일반전시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현상이다.

◆ 사전준비 충분하고 적극 홍보하는 주관회사 선정이 요건

지금까지의 전시회는 열화나 기타 관련 단체에서 주로 주관 했었지만 요즘은 상업적인 목적을 거두고 주관하는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시회 개최 효과는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전시회 안의 내부를 돌아다보면 승인 기관, 지원기관 등이 적혀 있는데 이들은 주로 관공서형식의 기관이고 이들 중 제일 중심이 되는 주관 민간기업은 잘 보아야 한다. 상하이지역에서는 이제 역사가 있는 전시회는 민간부인이 하는 전시회가 더 활발한 느낌이다. 오래된 주관회사는 사전준비가 충분하고 전시회 참여자를 모으는 노력도 대단하며 신문, TV, 잡지 등에 많은 광고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업체는 이러한 광고도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전시장을 매우기 위해 전시회 참가지만을 모으기도 하고

다음달에 전시회가 개최되는데 이따가 지도 안내장을 보내며 사무실로 참여 요청 전화를 해오기도 한다.(참고로 필자는 전시회에 자주 참가해 참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많은 팩스를 받고 있으며 팩스의 절반은 전시회 참여 요청 팩스다.)

그러나 심증판구 이렇게 급박하게 초정되는 전시회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람들이 때로는 이러한 전시회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낭패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필자가 이러한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엔 간단한 전 시부스를 사용하면서 가격을 상당히 인하시켜 참여한다. 당연히 노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관심있는 한 두 업체 만 만나면 성공이다”라는 마음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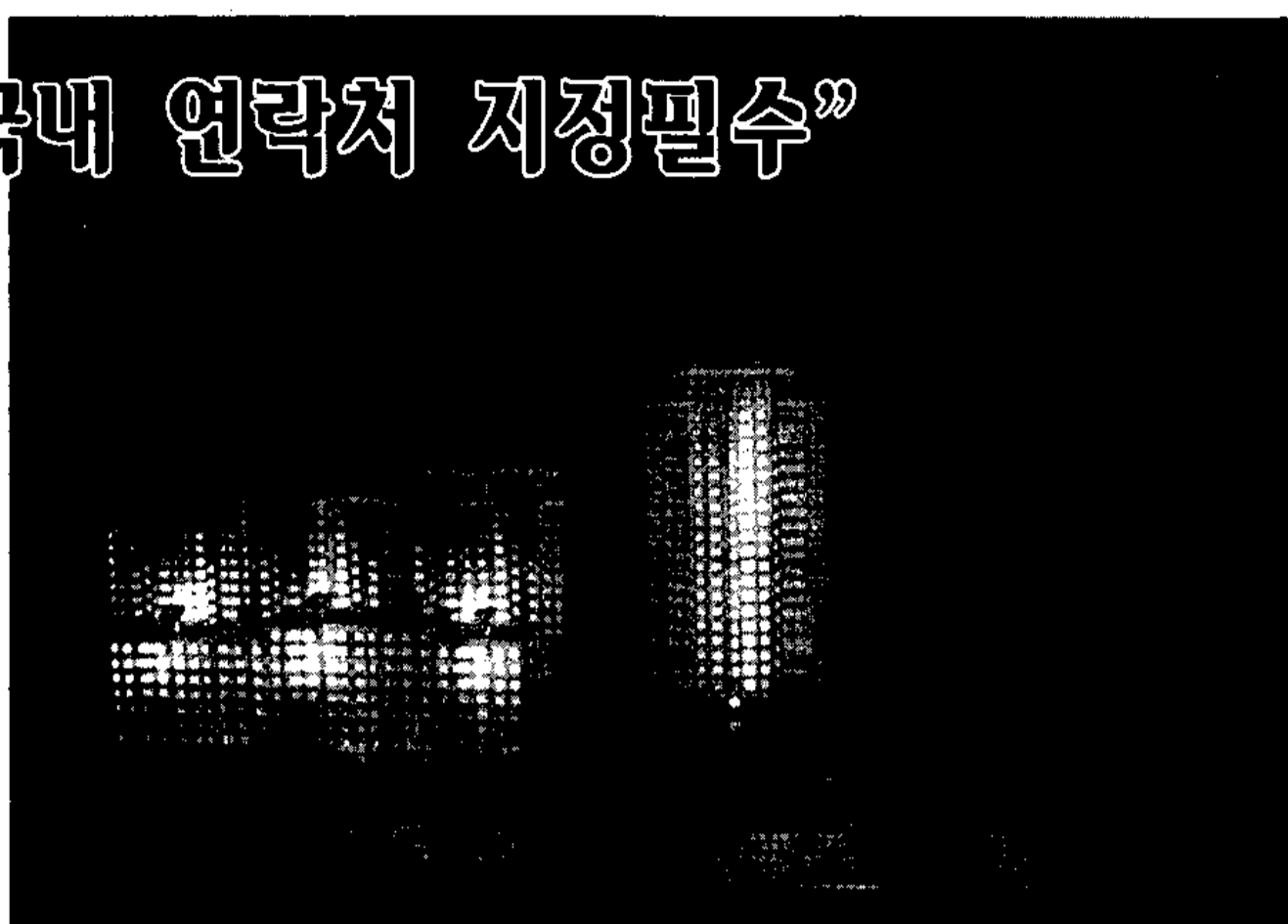
상해전시회는 대개 유명한 전시회가 4월과 10월~11월 중에 있고, 특히 여름에는 더욱 관계로 일반 참여자가 적어지는 실정이다.

◆ 홈페이지 주소·중국내 연락처 기재된 카탈로그나 CD제작 효과적

중국사람들은 이제 중국어로 된 상품 소개서를 원한다. 이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그냥 외국어로 된 상품소개서만 있으면 상관없어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카탈로그에는 당연히 중국 관련기관의 검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꽤나 많은 시간을 요하고, 수속비 등 경비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급수용 파이프 같은 경우 화학안전시험의 규격과 품질검사와 중국 위생부의 검사자료 및 합격증 등이 사전에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준비기간은 보통 4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환경보호차원에서 관련기관의 의무검사 요구가 있는 상품도 출현하고 있다.

카탈로그에는 한국의 홈페이지 주소와 중국에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두는 것이 좋다. 흔히들 전시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중국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중국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소개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중국 사람들은 이 제품을 보고 상품권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간다. 중국의 연락처가 있다면 적어도 샘플조로 판매하는 1차성 수출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준비를 잘 한다고 하여 비디오테이프를 준비하는데, 중국은 이미 비디오를 뛰어넘어 VCD, DVD로 넘어갔다.

당연히 미리 CD로 준비해야 한다. 코스모 파이프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전시회에서 CD를 신중히 모



시고 활용은 하지 않는 것 같다. 코스모의 경우 CD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그런지 설계원(설계사무소)이나 방문업체들이 CD를 보고 문의를 해오거나 건물의 설계에 반영시킨 사례도 보였다. 일단 설계가 반영되면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당연히 구매 상담이 있게 마련이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을 위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설계원 방면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이들을 위해서 한국어뿐만이 아닌 중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홈페이지 안에 중국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 중국거주 한국인 인사연락처로 활용 상부상조

중국 내 연락처 지정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리상이 확정되었으면 그 결정이 쉬운 일이었지만 대리상 지정까지는 그야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하이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이러한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연락처를 적어두면 좋을 듯 싶다. 연락처가 없어서 전시회 참여비용이 낭비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아무분이 필자가 무척이나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다.

현재 중국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재원으로 있다가 풀려났든 사람, 현지 사업을 하고자 일거리를 찾는 사람 등등. 이러한 경험을 심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흔히들 하는 말로 “한국 사람은 못 믿는다”는 등 이런 저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적어도 이들에게 상호간의 약정을 통하여 기회를 주면 그에 따른 이득은 분명히 생길 것이다. 유럽 사람

들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는 데만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고려할 만하다 하겠다.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는 그 상품의 시장성리포트도 적어내라는 요구로부터 한 건 한 건 소개료를 주는 것과 중국 수요처로부터 들어오는 연락 건에 비례하여 소개료를 지급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 고객 의견 경청과 각 지역 특성 에 따른 상품의 차별화 필요

제품이나 전시회 참여목적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여기서는 전시제품을 판매하고 대리상을 찾겠다는 내용으로 국한시켜 보겠다. 보통 전시회에는 일반소비자, 설계원, 그리고 전자제품전문판매상, 전자제품구매담당자 등이 온다. 최근에는 전문가들의 참여 빈도가 적어지는 것이 눈에 띄는데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이들 설계사나 구매담당자들이 이미 좋은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전시회 관람객들의 명함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상담시에는 우선 고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설명을 잘 해야 하겠지만 이들의 질문이나 궁금해 하는 사항을 잘 들어야 한다. 예전에 내가 한국 방수제 생산업체인 A업체를 도와 방수제를 상담하였을 때 놀랄만한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원래 중국은 영토가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사항도 지역마다 다르다. 한국은 연적이 작고 기후조건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동일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호북성, 우한 지역의 경우 온도차가 매우 심하다. 즉 여름에는 지붕온도가 달같이 살아갈 정도이고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므로 나름대로의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것이다. 건축자재와 관련하여 이러한 도시들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도시는 일명 “취후우”라고 불리는 굉장히 무더운 지역이다. 우한을 비롯하여 산둥성 제남, 강연성 제정, 허남성 정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설계원과 상담할 때에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잘 경청하여 설명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차후에 위해서 잘 적어놓아야 한다. 일반 소비자의 소량구매가 아닌 대량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반 소비자의 반응은 소홀히 해도 좋다는 예기는 아니다.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판매할 때 실내 장식에 있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최근에는 일부지역에서 한국과 같이 전체가 장식된 집을 시범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실내장식 재료는 거의 대부분이 도매상 또는 전자제 시장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다. 다른 나라 소비자들보다 중국의 소비자들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한국의 어느 제조업체는 중국에 수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오히려 미국시장보다 더 세밀한 품질검사가 필요하며 더욱 더 중국시장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수도꼭지의 경우 중국의 주방용 수도꼭지는 벽으로부터 이어지는 형식인데 한국은 아래쪽으로부터 이어지는 형식이라 전혀 팔릴 수 없었다. 많은 업체들이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출처: 'With China' 글쓴이: 최성철>

칠레 원목·석재 등 관세 철폐

한·칠레 FTA 체결 효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원목과 단란, 잔디종자, 석재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선 감과 냉동 감, 송이, 표고와 6mm 이상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목재류의 관세는 10년내 철폐된다.

28일 산업청은 양국간 FTA 합의안에는 이런 내용의 입산물 양허협정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밤, 잣, 은행, 대추, 신선표고, 고비, 고사리, 건조 감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허개발협정(DDA) 협상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호두는 7년내 철폐, 밤나무, 삼나무, 소나무, 기타 산림수, 아몬드, 오가피주 등은 5년내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주요 입산 부산물의 관세 철폐 목표연도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입입업 및 입입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 건설

서울시가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대단위 레저시설이 미흡하다고 보고 디즈니랜드같은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중이다.

지난 12월18일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따르면 시는 후반기에 대한 설치규모, 수용시설, 경제적 등 타당성을 분석해 내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확산 등에 따라 시민의 여가활동 욕구가 늘어나는데도 이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자표조사 및 국내의 사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2004년에는 시장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지선정 등에 따른 기본 실시계획과 실제적인 단계별 사업추진은 2005년 이후로 잡혀있다.

특히 최근 이시장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내년 초 월트 디즈니그룹의 마이클 아이즈너 회장을 초청해 투자유치 상담을 받으려고 했다”고 밝힌 테마파크와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아이즈너 회장은 이르면 다음달 조사단과 함께 서울에 와 테마파크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뒤 투자형태와 시기, 수익배분문제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OSTONE 2003

KOSTONE 2003 제7회 국제 석재·타일산업전시회

The 7th Int'l Stone & Tile Industry Exhibition

- 전시기간 : 2003년 3월12일(수)~15일(토)
- 장 소 : COEX 컨벤션 홀 11실 (3층)
- 주 최 :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 주 관 : 한국석재협회 / 한국국제전시회
- 후 원 :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재협회(예정)
- 출품품목 : 각종 석재류, 가공기계류, 채석장 비류, 운반장비류, 연마제, 다이아몬드 공구류, 운반장비류, 석가공용품 및 조각용품, 가공화석재, 관련 전문지

- ◆ 전시출품안내
 - 신청연적 : 1부스(9㎡, 약27평)를 기준
 - 출품신청
 - 제출서류 : 출품신청서(제약서1부, 계약금입금증(사본)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 신청방법 : 출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총 출품비의 50%)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함께 주관사로 FAX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사) 한국석재협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17-9 현대41타워 1910호
 - TEL : (02)2168-4080(내) FAX : (02)2168-4090
 - http://www.koscoss.or.kr
- ◆ 전시신청여감
 - 1차 마감 : 2003. 2월 10일
 - 2차 마감 : 부스배치후 잔여부스 소진시까지

- ◆ 전시회 출품비용
 - 특별부스 : 2,000,000원 / 부스(부가세 별도)
 - 기본부스 : 2,400,000원 / 부스(부가세 별도)
- ◆ 전시회 전시서비스
 - 포럼부스 전시공사
 - 포럼부스 전시공사는 일부 소형부스 신청업체에 대해서 주최회에서 입찰 수입하여 출품사 자체 부담으로 시공부터 철거까지 대행
 - 포럼부스 전시공사 제공내역
 - 바닥재(파티클), 상호간판, 부스의 벽체(측면, 후면) 및 칸막이설치, 콘센트1개, 안내배상 및 의자(업체당 1조), 조명 4개 / 부스당 (형광등 1개, 스포트라이트 3개)
 - 특별부스 전시공사는 신청연적내 제공함
 - 기술지원 서비스
 - 전력사용, 전화사용, 급배수, 압축공기 LAN, 고객관리시스템 등의 전시지원용 기술의 설치, 사용, 철거

